

<10.14(목) 석간 (인터넷 10.14 10:30 이후)>



## 보도자료

▶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 이민재  
담당 서기관 정혜영  
(02-2110-7182, 7180)

▶ 2010. 10. 13 배포  
▶ 총 6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고용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#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제1차 프로젝트 발표

- ◆ 2012년까지 7만개+ 청년 일자리 창출
- ◆ 대·중소기업 및 세대간 상생협력·동반성장 기반 구축
- ◆ 산업수요에 맞는 '일 잘하는 청년 일꾼' 양성

- 정부는 '10.10.14(목)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년, 기업,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」를 열고,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.
-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고용률(15~29세 기준 40.5%)이며,
  - 그 원인은 급속한 고학력화,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 공급 측면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, 경력자 선호 경향, 청년 창업 감소 등 수요 측면, 그리고 아직까지 취약한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

- 이에 따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 
 1)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2) 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) 민·관 공동으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.
- 이번에 발표된 「청년 내 일 만들기」 제1차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선도적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연계·파급 청년일자리 창출,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,
  - 앞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고,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.

제1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'12년까지 7만 개 이상 늘린다.
- 우선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내 창조 캠퍼스, 학교 밖 창조마을 사업이 신설되고, 청년 사회적기업가 2천명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.
  - 아울러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신규채용 지원금(1인당 최대 연 720만원)이 신설되고,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규모 확대, 청년 사회적기업 펀드, 중소·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와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.

-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에너지·자원, 연구개발 등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늘린다.
  - 특히, 증원되는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그 실적 또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.
- 화재·자연재해 관리, 재난구조·구급활동, 치안, 방역 등 안전분야와 특허·상표출원 심사, 그리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.
  - 이에 따라 소방, 치안, 특허심사 등 인력을 늘리고, 빈발하는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·방역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.
    - \* 지역사회서비스, 특수교육·영양·유치원교사, 예술·스포츠분야 초·중고 전문강사, 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,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
- 청년인턴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. 실효성이 낮은 행정인턴은 폐지하되,
  - 취업률 80% 이상의 좋은 성과를 보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, 창직·창업 인턴도 크게 늘려 2012년까지 37천명 이상을 정식취업시킬 계획이다.
- 세계경제 회복, 우리 청년층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해외취업 지원도 활성화된다.
- 둘째, 민간부문도 청년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○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업체가 청년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트너십 확립을 지원한다.

- 전경련 등 주관으로 '대기업-협력업체 공동 채용박람회'를 11월경 최초로 개최하고, 이러한 동반성장 고용전략을 직업능력개발과 기술연구개발 등의 분야까지 확산시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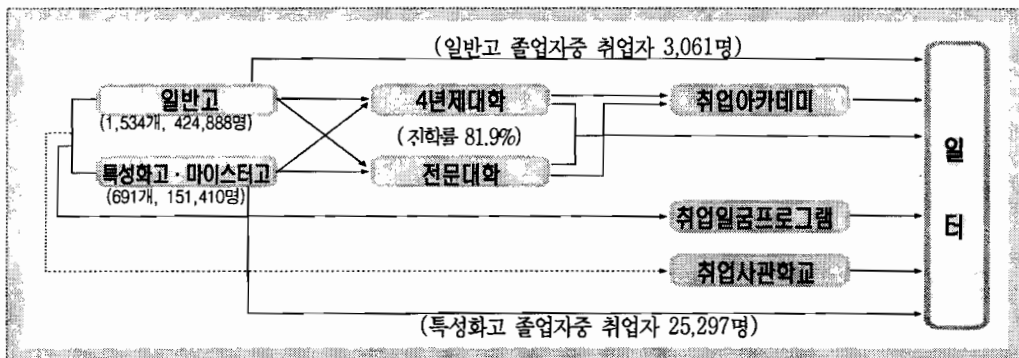
○ 대졸자와 퇴직자의 변화 추이에 미리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'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'의 자율적인 확산을 추진한다.

-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, 실근로시간단축, 일·가정 양립형 유연근로 등을 통하여 신규고용의 여력을 넓히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, 정부는 컨설팅 및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.

○ 금년 말부터 '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'(위원장: 고용부장관)에서 민간이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과 개선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·포상·전파한다.

□ 셋째,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힌다.

○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고클력자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.



- 인력수요자인 산업계 관점에서 업종별협회 또는 인적자원 협의체가 대학평가를 주도하고,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통계를 내실화 한다.
    -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'취업아카데미' 50개소를 신설하여, 수요자(기업, 산업체) 주도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.
  - '특성화고'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·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.
    - 비진학 고졸자는 '취업일굼 프로그램'을 통하여 1~2학년 과정에서는 직장체험·진로지도 등을 통해 적성을 찾은 후, 3학년 과정에서 인턴 또는 훈련 등을 거쳐 취업을 지원한다.
  -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자의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.
    -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,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도 검토한다.
  - '학교 밖 위기 청소년'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진로지도와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한 '취업사관학교'를 시범 운영한다.
-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. 대졸자 수가 57세 정년 도달자 수를 초과하는 향후 3~4년 동안 청년취업난 완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. 이번 1차 프로젝트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학교와 일터

의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나, 청년고용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구조의 개혁과 고용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

- 향후 추가 대책 마련 및 실행과정에서 “기업과 학교 관계자, 청년,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## 「청년 내 일 만들기(1차 프로젝트)」 주요 내용

대책	주요내용	시기
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	·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4,000명, 1사 1사회적 기업, 사회적기업 펀드 1백억원 조성	'11~'12년
	· 창조캠퍼스 10개소, 창조마을 지원	
	· 신성장 동력분야 창업기업 채용지원 3,600명	'11년까지
	·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확대(특례보증: 신보 4.5조원, 기보 1조원, 일자리창출펀드 12백억원, 영화제작펀드 400억원)	
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	· 신규채용실적 경영평가 반영	'11년
	· 7,200명 증원 (에너지·연구·개발·국립대 병원 등)	'11~'12년
공무원 증원	· 소방분야 450명, 치안분야 700명, 상표출원심사 200명	'11년
재해방지·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확대	· 재해방지·질병모니터링 1,000명	'11년
	· 지역사회서비스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4,800명	'11년
인턴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취업	·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창업·창직 인턴 후 취업 37,100명 · 행정인턴 폐지	'11~'12년
해외취업 활성화	· IT, 항공, 호텔, 건설 등 알선·연수취업 10,700명 · 인턴후 취업 1,150명, 대외원조사업 등 연계취업 130명	'11년
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고용협력	· 공동채용박람회, 기술연구개발 및 연수·훈련지원 등	'10년말부터
세대간 일자리 나누기	· 재직자 실근로시간 단축, 직업능력개발, 유연근로 확대 · 청년고용 확대	'10년말부터
대학의 취업역량 강화	·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 및 취업률 평가 강화	'11년부터
	· 대학졸업(예정)자 취업아카데미 (50개소, 1만명)	'11년부터
· 취업선도학교지원, 특별교부금 차등지원		
· 취업일곱 프로그램, 취업인턴 허용		
· 고졸취업자 입영연기 확대, 산업기능요원제 연장('16년) 검토		
특성화고 취업촉진	· 근로취업자 입영연기 확대, 산업기능요원제 연장('16년) 검토	'11년부터
	· 근로경험 평가 인증제	
위기청소년 재도전 지원	· 취업사관학교 시범운영, 자립수당(30만원) 지원	'11년부터